

구례군, 재생에너지로 주민 기본소득 창출 본격화

구례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 기본소득' 창출에 본격 나섰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 전문 기업인 ㈜유선기업, SK이티닉스와 함께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유선기업, SK이티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고, 주민 이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주목할 점은 주민이 수익 배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구례군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을 넘어,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에너지 전문 기업들과 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육상풍력·태양광 발전 개발...“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군은 단순한 발전 용량 확대보다 생태계와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육상풍력은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식물·동물·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도록 '저영향 풍력' 방식을 채택한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대규모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방식을 도입한다. 농지·임야의 무분별한 전용을 지양하고, 유휴 부지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경관 훼손과 토지 이용 갈등을 최소화한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적인 경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곧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의 바람과 햇살이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실질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자립 도시이자, 기본소득 실현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에너지 전문 기업인 ㈜유선기업, SK이티닉스와 함께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구례군청

장흥 대표 농수산물, 아프리카 시장 진출한다

요하네스버그 판매센터 개설 2년간 50만달러 수출 MOU

장흥군 농수산물식품이 아프리카 식탁 위에 오른다

8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농수산물 해외 판매센터를 신규 개설하고,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나섰다.

이번 해외판매센터 개설은 장흥군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추진됐다. 요하네스버그는 아프리카 경제·물류 중심지로, 인근 국가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 유통업체들과 각각 2년간 5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총 100만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했으며, 장흥 농수산물식품의 지속적인 해외 판로 확대가 가능해질 전



장흥군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농수산물 해외판매센터를 신규 개설하고,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나섰다. 사진제공=장흥군청

망이다. 각 기업은 장흥 바이오품산업 단지(3300㎡)에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시설 구축을 위해 각각 약 15억원을 투자하고, 기업당 10명씩 총 2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투자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해외판매센터에서는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쌀, 무산김, 표고버섯 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요하네스버그 해외판매센터 개설과 수출·투자협약 체결은 장흥 농수산물식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

여수,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

전국 수산인 1500여명 집결...“어촌에 새 활력”

여수시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전국 수산인들의 축제를 위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여수시·전남도·한국수산업총연합회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전국 수산인과 내외 귀빈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짐하는 주제 세레머니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대행사로 2026여수세계박람회 기념 세레머니를 통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여수의 대표 수산물인 참돔, 굴, 전복 등을 알리는 시식회와 수산정책 홍보 전시 부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전 세계에 섬과 바다의 가치를 알리는 2026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역사적인 해다”며 “이번 의미 있는 해에 개최된 이번 기념행사가 수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일로 지정된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30일까지 접수... 50만원 지원

광양시는 철강산업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재직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고용노동부 '철강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사회보장료, 건강검진비, 의료비, 출퇴근 유류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복지 관련 지출 비용이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출 인정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6년 4월 1일) 이전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양시 소재 철강 또는 연관 기업에 재직 중인 상용직 근로자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신청일 직전 급여 월 45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3100명이다.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일자리정보망 누리집(https://job.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15일부터 광양상공회의소에서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21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보성, 연극·뮤지컬 공연 라인업 확정

국비 2억2400만원 확보...5~11월 운영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이 2026년 기획 공연 라인업을 확정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2억2400여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비 확보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의 '문화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이뤄졌다.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에는 전통 공연 '송소희×두번째달×오단애: 모던

민요', 뮤지컬 '슈퍼거북 슈퍼토끼', 연극 '국어의 시간', 전통 공연 '김준수×하운주×김부만: 풍류일가', 연극 '비온드야리랑' 등 5개 작품이 선정돼 국비 1억 2400여만원을 확보했다.

문화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는 연극 '헬로우 미스 미스터', 연극 '별빛 쏟아지는 마을', 연극 '미세스마캤', 연극 '고스트', 연극 '수상한 집주인' 등 5개 작품이 포함돼 국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총 10편의 공연은 5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고르게 편성돼 주민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별 티켓 예매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누리집(https://www.boseong.go.kr/art)'을 통해 안내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두 개의 공모사업에 동시 선정된 만큼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가겠다”며 “연극, 뮤지컬, 전통 공연 등 장르를 다양하게 구성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라인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고흥, 고향사랑기부제로 스포츠 인재 육성

초등학생 대상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고흥군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차범근 축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이미 조성된 기금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선택해 만들어가는 '지정기부'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부자가 사업 취지에 공감해

한 축구 교육과 성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진다.

차범근 축구교실 꿈나무 육성사업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지 훈련장과 선수합숙소 조성까지 연계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 지도자들과 연

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특별한 공감과 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부자는 공식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위기브', '헬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많은 분이 직접 참여해 완성해 가는 청소년 미래 사업이다”며 “차범근이라는 상징성과 이들의 꿈을 향한 도전이 만나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순천시는 최근 장천파랑새창고에서 '여순항쟁 역사관' 개관식을 열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 여순사건 교육·공감의 장 마련

장천동 복합문화공간에 여순항쟁 역사관 개관

순천시는 최근 장천파랑새창고(장천동 17-10번지)에서 '여순항쟁 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사관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해당 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장천동 복합문화공간 내에 위치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 환경을 정비했다.

전시 구성은 약 5개월간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주제 설정과 자료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역사관은 총 18개 주제 면으로 구성됐으며, 여순항쟁의 전개 과정, 피해 상황, 진실규명 노력, 관련 역사 지도, 유족회 활동 등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번 개관으로 기존 '여순10·19항쟁 역사관'을 이전·확장한 형태의 전시 공간이 운영된다.

개관식에는 노관규 시장, 유족회 관계자와 시민 등 50명이 참석했다.

역사관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